

올 수능 '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체감도 높인다

'킬러문항' 없는 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 변별력 확보 관건 평가원 "학교 교육·EBS로 해결 가능한 적정 난이도 문항 출제"

202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시행되며, 성적표는 12월 8일 배부된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공고했다.

◇ EBS 연계율 50% 유지... 연계 체감도는 높아진다=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수학 II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평가원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킬러문항' 배제에 난이도 안갯속... '9월 모평 참고률' =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올해 수능 난이도의 향방이다. 보통 수험생들은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보고 당해 수능의 난이도를 짐작하는데, 올해는 지난 1월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가능자로서

가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영역 독서 부분의 '킬러문항'을 비판하면서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준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뜻인지, 쉬운 수능이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6일 예정된 평가원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문항 유형을 수험생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성적표 12월 8일 배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능 성적 증명서는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온라인 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 접수처에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장애 학생 편의를 위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긴 시험 시간이 부여된다. 경중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의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가 최고"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일 어린이들이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인근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 수문관리원 사망' 농어촌공사 책임은?

광주노동청, 조사 착수

장맛비에 수문관리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함평 60대 수문관리원(6월 30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가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함평천 수문관리인 A(여·68)씨와 도급계약을 맺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노동청은 수문 점검과 급·배수, 긴급상황 대응 등 업무를 맡은 A

씨가 업무와 관련해 숨졌다고 보고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관계와는 달리 고용주·임금지급주체·직업지시 등에 대해 실질적 지시가 있었다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A씨에 대한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 광주·담양 등 폭염주의보

복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4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1일자로 광주와 담양, 순천 등 13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그러나 3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해상에 자리잡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곳곳에 10~5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

다고 예보했다.

반면 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해안 지역은 3일부터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4일부터는 광주·전남 전역이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으나, 4일 오전을 기점으로 폭염주의보도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령 영아' 광주·전남 136명 전수 조사

경찰, 5건 수사 중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는 전국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7자리 일련번호로, 신

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병원·보호자 인적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뒤따르지 않은 경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영아로 분류된다.

전수조사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조사를 진행한 뒤, 출생신고 여부나 소재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전남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는 아동은 각각 광주 50명, 전남 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광주 1건, 전남 4건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경찰에 접수돼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전남 5건 중 3건의 부모들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하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다.

또 전남에서는 친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1건씩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일까지 행정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사립유치원 원아에 월 10만원씩 지급키로

올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교육비가 지원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4개월분인 24억원을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애초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한다는 이유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운영한다.

결국, 광주시와 논의 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동일하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